

최지현 개인전
_있거나 없는, 없거나 있는

INDIVIDUAL EXHIBITION
FOR CHOI JIHYEON

유 무 유
有 無 無 有

Existence and
Non-Existence

2024. 10. 1. TUE — 11. 10. SUN
김홍도미술관 상상미술공장

목차

10 전시서문

12 평론
안진국 미술평론가, 숲, 모이고 흩어지는 작은 조각들의 세계

20 유무무유有無無有_ 있거나 없는, 없거나 있는

70 작가 인터뷰

74 작가약력

82 발행정보

Table of Contents

10 Preface

12 Review
Lev AAN, Art Critic, The Forest: A World of Fragments
That Gather and Scatter: An Ensemble of Presence
and Absence

20 Existence and Non-Existence

70 Interview with the Artist

74 Curriculum Vitae

82 Publication Information



유무유무
有無無有

최지현 개인전
있거나 없는, 없거나 있는

INDIVIDUAL EXHIBITION
FOR CHOI JIHY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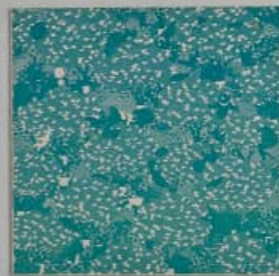
2024. 10. 1. TUE — 11. 10. SUN

김홍도미술관 상상미술공장

2024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후속 지원프로그램

2024 DANWON ART FESTIVAL FOLLOW-UP SUPPORTING PROGRAM FOR THE SELECTED ARTISTS

주최 안산시 주관 단원미술공화국



2024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후속 지원프로그램

최지현 개인전 《유무무유有無無有_있거나 없는, 없거나 있는》

안산시와 (재)안산문화재단에서는 단원 김홍도의 예술혼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역량 있는 작가 발굴과 육성을 위해 매년 단원미술제를 통해 작가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5년 선정작가 공모로 전환 이후에는 해외 워크숍, 아트페어, 기획전시 등 후속 지원프로그램으로 단원미술제를 통해 배출된 작가들이 지속적인 창작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2023년에 진행된 제24회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공모 대상 수상자 최지현의 개인전 《유무무유有無無有_있거나 없는, 없거나 있는》을 개최한다.

최지현은 전통적인 매체를 사용하여 기억과 존재를 화두로 오랫동안 작업을 해왔다. 작가에게 현재란 지난 과거의 경험과 기억에서 비롯되고, 미래의 모습 또한 수많은 오늘이 모여 완성되는 것이라 여긴다. 이번 《유무무유有無無有_있거나 없는, 없거나 있는》는 이러한 기억의 조각을 모아 다양한 형과 색으로 연결하여 숲을 이루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화면 가득 빼곡히 채운 식물에 동물, 곤충, 물고기를 패턴화하여 숨겨놓은 작가의 작품에는 다양한 형태를 가진 ‘숲’이라는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담고 있다. 이는 작가 자신을 둘러싼 사회구조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존재가 기억에 따라 있거나 없어지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기억과 존재에 대한 고민을 증명하는 장치로 작업에 작용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기억을 작품에 기록처럼 남겨 존재를 다시 기억하는 과정을 시각화하여 작가는 보는 이로 하여금 단조로운 일상이 새롭게 다가와 지금, 이 순간을 가치 있게 한다.

작품 속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를 찾아보면서 이번 전시를 통해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Pref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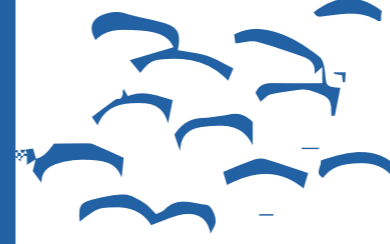
The city of Ansan and the Ansan Cultural Foundation creatively inherit the artistic spirit of Danwon Kim Hong Do and annually select and support artists through the Danwon Art Festival to discover and nurture talented creators. Since transitioning to an open call for selected artists in 2015, the festival has provided various opportunities for artists to continue their creative activities through follow-up support programs such as overseas workshops, art fairs, and curated exhibitions. This year, we are pleased to present the solo exhibition 《Existence and Non-Existence>> by Choi Ji-hyun, Grand Prize awardee from the 24th Danwon Art Festival in 2023.

Choi has long been working with traditional media, exploring the themes of memory and existence. For the artist, the present arises from past experiences and memories, and the future is seen as the culmination of countless todays. In this exhibition, << Existence and Non-Existence >>, she presents works that gather fragments of memory and connect them through various forms and colors to create a forest.

The artist's work, densely filled with plants and patterned with hidden animals, insects, and fish, encapsulates our existence within the diverse "forest" of society. This reflects her contemplation of the phenomenon where individual existence fluctuates based on memory, influenced by the social structures surrounding her and her relationships with others. Consequently, her work serves as a device that illustrates her reflections on memory and existence. By visualizing the process of re-remembering existence through her artwork as a record of memory, she invites viewers to see their monotonous daily lives in a new light, making the present moment more valuable.

As you explore the hidden stories within the works, I hope this exhibition provides an opportunity for each of us to reflect on our own lives.





숲, 모이고 흩어지는 작은 조각들의 세계
: 존재와 부재의 양상블
안진국 미술비평가

“아무도없는 숲에서 큰 나무가 쓰러졌다.” 소리가 났을까, 나지 않았을까? 17세기 관념론 철학자 조지 버클리(George Berkeley)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도 없는 숲에서 큰 나무가 쓰러지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 질문은 그의 말에서 따왔다.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으면, 소리가 없는 것이라는 게 버클리의 생각이다. 얼핏 생각해 보면, 이 주장은 허황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곤충들이 기어다니고, 식물들이 자라고 있으며,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울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하기 전까지 그것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버클리 말의 핵심은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지각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인간이 지각하는 것만이 존재한다는 주장, 이게 바로 관념론의 본질이며, 인식론의 시작이다. 이러한 관념론적·인식론적 사고는 최근까지도 우리의 사유를 지배해 왔다. 그런데 ‘내’가 지각하지 못한다고 과연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최지현은 이러한 철학적 질문을 시각적으로 탐구하는 작가다. 그는 주로 숲을 그린다. 정확히 말하면, 숲과 그 숲 안에 숨겨진 존재들을 그린다. (그는 해초가 가득 찬 바다도 일종의 숲으로 본다.) 그는 발견되길 기다리는 존재들을 숲에 그려 넣는다. 이 존재들은 숲과 유사한 색을 띠고 있어서, 처음에는 숲과 구분하기 쉽지 않다. 작품을 세심히 들여다봐야만 그 존재들을 찾아낼 수 있다. 숲에 숨어 있는 존재를 모두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존재들은 그의 숲에 없는 것인가? 우리가 그의 숲에서 어떤 존재를 찾아내지(지각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들은 그곳에 존재한다. 누가 찾아 주길 기다리며 그곳에 있는 것이다.

숨은그림과 숲: 부재하지만, 존재하는

최지현은 단색조의 숲속에서 쉽게 눈에 잘 띄지 않는 존재나 형태를 찾도록 우리를 이끈다. 이러한 표현 방식 때문에 그는 자신의 그림을 ‘숨은 그림’이라 부르며, 그 형식 역시 ‘숨은그림찾기’를 연상케 한다. 일반적으로 숨은그림찾기는 단순한 시각적 즐거움을 위한 놀이로 여겨지곤 한다. 하지만 최지현의 작품은 그것을 넘어선다. 그의 작품에는 존재의 가시성, 인식의 문제, 그리고 비(非)인식적 존재와 같은 심오한 문제가 내재해 있다.

숲은 최지현의 작업에서 중요한 배경이자 상징적 공간이다. (숲을 그린 작업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2017), <꿈꾸는 날>(2020), <가보지 않은 곳>(2020), <함께 보낸 시간들>(2021), <빛이 나는 시간>(2022), <지나가는 것에 대한>(2023), <언제나 함께>(2024) 등 다양한 제목을 지니는데, 작가는 이를 통칭하여 ‘숲 시리즈’라고 말한다.) 그는 숲이 지닌 복잡한 패턴과 구조를 통해 존재를 숨기고, 숨겨진 존재를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 존재의 가시성과 인식의 문제를 탐구한다. 즉 존재와 부재의 의미를 고찰하게 한다. 최지현의 작품에서 존재와 부재는 인식론적 관점과 표현의 방식이라는 두 가지 층위

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인식론적 관점에서 지각하는 것과 지각하지 못하는 것이, 표현의 방식에서 채색된 부분과 채색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와 부재를 드러낸다. 인식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지각과 비(非)지각, 그리고 존재에 관한 사유는 인식론(관념론)과 존재론(실재론)의 논의까지 나아가게 하는 철학적 사유로, 작가의 작업을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최지현은 “그림에 꿈이 있는데도 그것을 못 찾으면 그 사람에게에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말한다(작가와 인터뷰, 이하 인터뷰). 그렇다면 그 꿈은 실제로 없는 것인가? 인식론적 관점에서 보면 인식하지 못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존재론적 관점에서, 꿈은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실재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서양 철학에서 오랜 시간 대립해 온 인식과 존재의 문제로, 작가는 숨은 그림이라는 형식을 통해 이 철학적 질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인식과 존재의 문제는 최지현의 작품의 표현 방식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그의 그림에서 채색된 부분(존재)과 채색되지 않은 부분(부재)은 상호작용을 하며 형상을 만들어낸다. 채색하지 않음으로써 집의 창문이 되기도 하고, 흰 원숭이나 꿈의 흰 몸통이 되기도 하고, 연기가 되기도 한다. 채색하지 않은 부분은 형상의 외곽을 드러내는 작용을 하거나, 형상 그 자체가 된다. 부재가 부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부재가 존재로 나타날 때, 과연 그것을 부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듯 최지현은 지각 현상과 표현 방식을 통해,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이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존재의 파편화와 재형성: 작은 조각들이 모여

최지현은 “죽은 이에 대한 정신이나 기억은 산 사람들이 나눠 갖는다”고 말한다(작업노트). 이는 죽은 이가 부재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 기억으로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의 부재와 존재에 대한 질문은 죽음과 삶의 경계와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작가는 부재와 존재가 동시에 공존하는 숲과 그 안의 존재들을 통해, 죽음이 단순히 소멸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삶의 일부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찾지 못한 숨은 그림 속 객체처럼 부재하지만 존재하는 것, 인식하지 못하지만 숲에 있는 것, 그것이 최지현에게 있어 죽음인 것이다.

이러한 삶과 죽음의 동시적이고 공존적인 사유는 작가 어머니의 죽음에서 발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죽음은 그에게 깊은 상실감을 남겼고, 그의 작업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유품을 정리하던 중 발견한, 전혀 사용하지 않은 어머니의 새 화장품 세트는, 눈앞의 죽음을 알지 못한 채 미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아꼈던 어머니의 모습을 상기시키며, 안쓰러움과 슬픔을 불러왔다. 이러한 감정은 어디 있는지조차 짐작 가지 않는 물건들, 금세 잊히는 기억들을 대상으로 존재와 부재의 문제를 다룬 ‘숨은 그림’을 시작하게 했다(<새 신을 신고>(2015), <다시 그때로>(2015), <따뜻한 온기>(2016), <꽃 길만 걷길>(2017) 등).

또한, 작가의 어머니 유품이 작은 항아리에 담기는 과정은 파편화와 재형성의 순환적 관계를 사유하게 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떤 형태로든 쪼개진다.”(작업노트) 그는 죽은 후 화장되어 한 줌 재로 변하는 과정을 “쪼개진다”, 즉 조각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야기, 기억으로 재형성된다고 말한다. “쪼개진 조각들이 흩어지지만, 결국에는 모여서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가 기억이 된다.”(인터뷰)

이러한 최지현의 생각은 스케치 없이 채색한 작은 조각들로 화면을 구성하는 표현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 채색한 조각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쪼개져 있지만), 결국 모여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이야기를 형성한다. 작가는 죽음 이후에도 흩어진 기억이 다시 모여 하나의 존재로 돌아오는 과정을 이러한 표현을 통해 보여준다. 더불어 그는 “완성된 화면은 차곡차곡 쌓여 오늘을 이야기하지만, 언젠간 그 이야기는 흩어진다”라고 말함으로써(작업노트), 파편화와 재형성이 순환 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삶과 죽음이 시간과 기억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된다는 점을 암시한다.

연기: 삶과 죽음의 앙상블

최지현의 작품에서 죽음의 상징이자 삶과 죽음의 얽힘을 보여주는 표현은 ‘연기’다. 불 꺼진 집과 그 집에서 피어나오는 흰 연기는 죽음을 의미한다. “불 꺼진 집은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집에서만 연기가 나오고, ... 불이 켜진 집에서는 연기가 나오지 않고, 오직 불이 꺼진 집에서만 연기가 나와요.”(인터뷰) “연기는 죽음을 의미하고, 산 것들과 어우러져 그 연기가 드러난다.”(작업노트) 이 흰 연기는 채색되지 않은 부분으로, 죽음의 부재와 색 없음의 부재라는 이중 부재를 내포한다. 채색하지 않음으로써 형상을 얻는 연기는 주변의 채색된 부분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는 삶과 죽음이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작가는 불 꺼진 집과 꺼진 집을 대조하며, 산 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지만, 불 꺼진 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을 통해 산 자와 죽은 자가 다시금 대화를 나누고,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연기는 죽음이 단순히 끝이 아니라, 산 자의 삶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며 상호작용을 하는 현상임을 상징한다. 채색한 부분과 채색하지 않은 부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상이 드러나는 그의 작업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최지현의 작업에서 죽음은 더 이상 부재의 상태가 아니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하나의 방식이다. 그의 작업은 죽음과 상실을 겪으며 깨닫게 된 깊은 철학적 성찰을 시각적으로 풀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무도 없는 숲이라도

최지현은 개인적인 상실 경험을 바탕으로 인식과 존재의 문제에 깊이 천착해 왔다. 그는 ‘숨은 그림’을 통해 존재와 부재의 철학적 질문을 던지며, 죽음에 의해 쪼개졌다가(파편화) 다시 모여 하나의 이야기와 기억이 되고(재형성),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흩어지는(파편화) 순환적 관계에 대해 사유하도록 우리를 이끈다. 작가는 삶과 죽음은 서로 얽혀 있으며,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그의 이러한 표현과 사유는 우리 자신의 존재와 죽은 자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재고하게 만든다.

그가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것은 이것일 것이다.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그곳에 있다.” 만약 버클리가 최지현에게 “아무도 없는 숲에서 큰 나무가 쓰러지면 소리가 나는가?”라고 묻는다면, 최지현은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아무도 없는 숲에서도 큰 나무가 쓰러지면 ‘쿵’하고 소리가 난다.”

The Forest: A World of Fragments That Gather and Scatter

: An Ensemble of Presence and Absence

Lev AAN, Art Critic

“A great tree fell in a forest where no one was around.” Did it make a sound or not? George Berkeley, a 17th-century philosopher, would say, “No sound.” He famously argued, “If a tree falls in a forest where no one is around to hear it, it doesn’t make a sound.” This question stems from Berkeley’s belief that if there is no one to hear it, there is no sound. At first glance, this might seem like an extreme or far-fetched claim, but it’s not entirely without merit. Countless events unfold around us that go unnoticed—tiny insects crawl, plants grow, and somewhere, someone is crying—but until we become aware of these occurrences, they don’t truly exist “to us.”

The essence of Berkeley’s statement is that “to be is to be perceived.” It also means that existence is tied to perception. In other words, “what is not perceived does not exist.” The claim that only what humans perceive exists lies at the heart of conceptualism and marks the beginning of epistemology. This epistemological approach has shaped our thinking for centuries, but does it really mean that things cease to exist simply because “I” don’t perceive them?

Jihyun Choi is an artist who visually explores these philosophical questions. She primarily paints forests—or more precisely, forests and the hidden creatures within them. (He also views the sea filled with seaweed as a kind of underwater forest.) Her paintings depict creatures nestled in the woods, waiting to be discovered. These beings are in similar colors to the forest so that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at first glance. One has to look closely to notice them. It’s nearly impossible to find every creature hiding in her forests. Then, does that mean they aren’t there? Even if we fail to see them, they are still present, quietly waiting for someone to recognize their existence.

Hidden Figures and Forests: Absent, Yet Present

Jihyun Choi invites us to search for beings or forms that are not immediately visible in his monochromatic forests. This unique approach leads him to describe his paintings as “hidden figures,” reminiscent of a “hidden pictures” game. While hidden object games are often considered simple visual entertainment, Choi’s work transcends this simplicity. His paintings grapple with deeper philosophical questions, such as the visibility of existence, the challenges of recognition, and the idea of

unseen yet present realities.

Forests serve as a vital backdrop and symbolic space in Jihyun Choi’s work. His forest-themed pieces bear various titles, including <Where the Wind Blows(2017)>, <Dreaming Day(2020)>, <Unvisited Place (2020)>, <Time Spent Together(2021)>, <Time of Light(2022)>, <About Passing Things(2023)>, and <Always Together(2024)>—collectively referred to by the artist as the Forest Series. Through the intricate patterns and structures of these forests, Choi explores themes of visibility and perception by concealing and revealing hidden figures, prompting viewers to reflect on the concepts of presence and absence.

In Choi’s work, presence and absence can be examined on two levels: the epistemological perspective and the mode of expression. From the epistemological perspective, perception and non-perception, and the colored and unpainted parts of the mode of expression reveal presence and absence. From an epistemological point of view, the idea of perception, non-perception, and existence is a philosophical idea that leads to the discussion of epistemology (ontology) and existence (realism), and it can be said to be the core of the artist’s work. “If there is a bear in a painting and you can’t find it, it’s as if it doesn’t exist for you,” Choi says (interview with the artist, hereafter). From an epistemological point of view, what you don’t recognize doesn’t exist. But from an ontological perspective, the bear is real, whether you recognize it or not. This is a question of perception and existence that has long been debated in Western philosophy, and the artist raises this philosophical question through the form of hidden pictures.

These issues of perception and presence are also evident in the way Choi’s work is presented: in her paintings, the painted (presence) and unpainted (absence) interact to create shapes. Unpainted areas can be the windows of a house, the white body of a white monkey or bear, or smoke. Unpainted areas act as the outline of a shape, or they become the shape itself. Absence does not appear as absence, but as the form of presence. In this way, when absence appears as presence, can it really be called absence? Through the phenomenon of perception and representation, Choi asks the question of whether what we consider to be absent is really absent.

Fragmentation and Reformation of Existence: A Gathering of Small Pieces

Jihyun Choi states, “The spirit or memory of the deceased is shared among the living” (artist’s notes). This suggests that the deceased are not entirely absent, but remain with us through the memories we shared with them. Choi’s exploration of absence and presence is deeply intertwined with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Through the forest and the hidden

figures within it, where absence and presence coexist, she reveals that death is not merely a vanishing but something that lingers as part of life around us. Like the hidden figures that remain unseen yet exist, death is something not immediately recognized, but present, much like the objects we overlook in the forest.

This simultaneous and coexistent reflection on life and death can be traced back to the passing of Choi's mother. Her death left her with a profound sense of loss, marking a significant turning point in her work. While sorting through her belongings, Choi discovered a set of new, unused cosmetics. These items, saved for a future she would never experience, evoked a deep sadness, reminding Choi of her unawareness of her impending death. These emotions sparked her exploration of existence and absence through her "hidden figures" series, which deals with objects whose locations are unknown and memories that are quickly forgotten (<New Shoes[2015]>, <Back to That Time[2015]>, <Warmth[2016]>, <Walking the Flower Path[2017]>, and others).

The process of placing the artist's mother's ashes into a small urn led him to reflect on the cyclical relationship between fragmentation and reformation. "When a person dies, they are broken into pieces in one form or another," she writes in her notes. Choi describes the transformation after death—being cremated and reduced to a handful of ashes—as "fragmentation," or breaking into pieces. These fragments, she explains, come together again to form a new story, a memory. "Though the broken pieces scatter, they eventually come together to form a story, and that story becomes a memory" (interview).

This idea is reflected in Choi's artistic process, where she constructs her compositions from small, unsketched, painted fragments. These fragments, though individually disconnected (or fragmented), ultimately come together to create a unified form and tell a story. Through this method, Choi illustrates the process of scattered memories reconvening to form a singular existence, even after death. Moreover, he suggests that "a finished painting is a layering of stories from today, but one day, those stories will scatter" (artist's notes), highlighting the cyclical relationship between fragmentation and reformation. This implies that life and death are continuously reconfigured through time and memory.

Smoke: the ensemble of life and death

In **Jihyun Choi's** work, smoke symbolizes death and the entanglement of life and death. A house with its lights turned off, emitting white smoke, represents death. "A house with no lights symbolizes death. Only from these unlit houses does the smoke emerge; no smoke comes from a house with its lights on—only from the ones where the lights are out" (interview). "Smoke represents death, and it merges with the living, revealing itself

through that interaction" (artist's notes). This white smoke, depicted as unpainted areas, carries a double absence—the absence of color and the absence of life. The unpainted smoke takes on form through its contrast with the colored surroundings, visually revealing the interwoven nature of life and death. By contrasting lit and unlit houses, Choi distinguishes the living from the dead. Yet, in the scene where smoke rises from the unlit houses, she shows how the living and the dead are still in conversation, connected across this divide. The smoke serves as a reminder that death is not merely an ending, but a presence that continues to interact with the lives of the living. The interplay between the painted and unpainted areas, which together form the shapes in Choi's work, highlights that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is not clear-cut. Rather, the two are intertwined, each shaping the existence of the other.

In Choi's work, death is no longer a state of absence but a force that actively engages within life. Her art visually expresses the deep philosophical reflections she gained through experiencing death and loss, offering a profound meditation on the continuing presence of the deceased within the lives of the living.

Even in an Empty Forest

Jihyun Choi has long delved deeply into the issues of perception and existence, drawing from her personal experiences of loss. Through her "hidden figures," she raises philosophical questions about presence and absence, inviting us to contemplate the cyclical relationship between fragmentation and reformation: how death shatters existence into fragments, which then gather to form stories and memories, only to scatter again over time. In her visual language, Choi explores how life and death are intertwined, with each shaping the other's existence. This reflection prompts us to reconsider how our own existence interacts with the memory of the deceased.

What Choi seeks to convey through her work is perhaps this: "Even if we do not perceive it, it is still there." If George Berkeley were to ask Choi, "If a tree falls in a forest with no one around, does it make a sound?" Choi might respond, "Even in an empty forest, when a great tree falls, it makes a 'thud.'"



○ 卍 卍 卍 ○
卍 卍 卍 卍

有無無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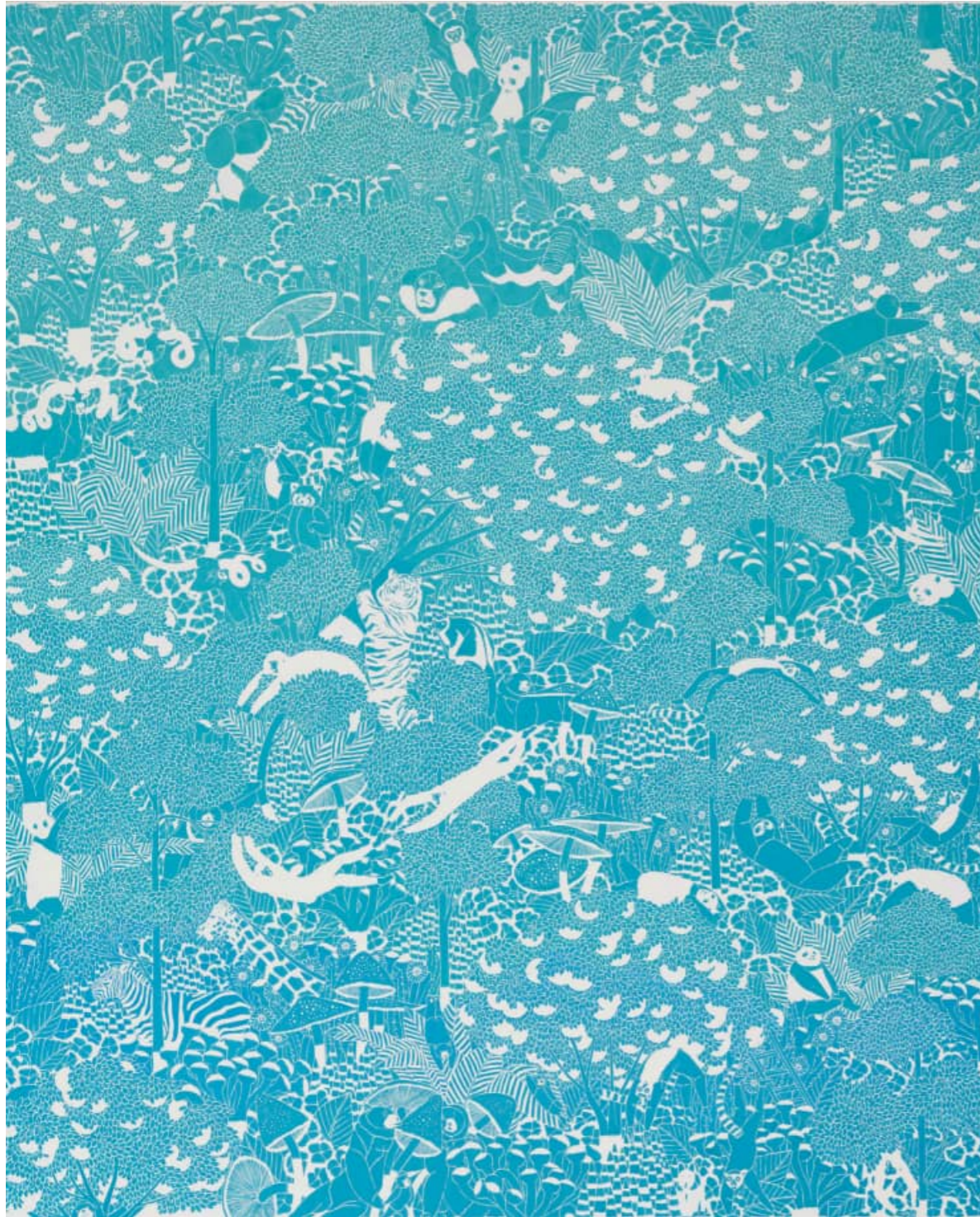
있거나 없는,
없거나 있는

Existence and
Non-Exist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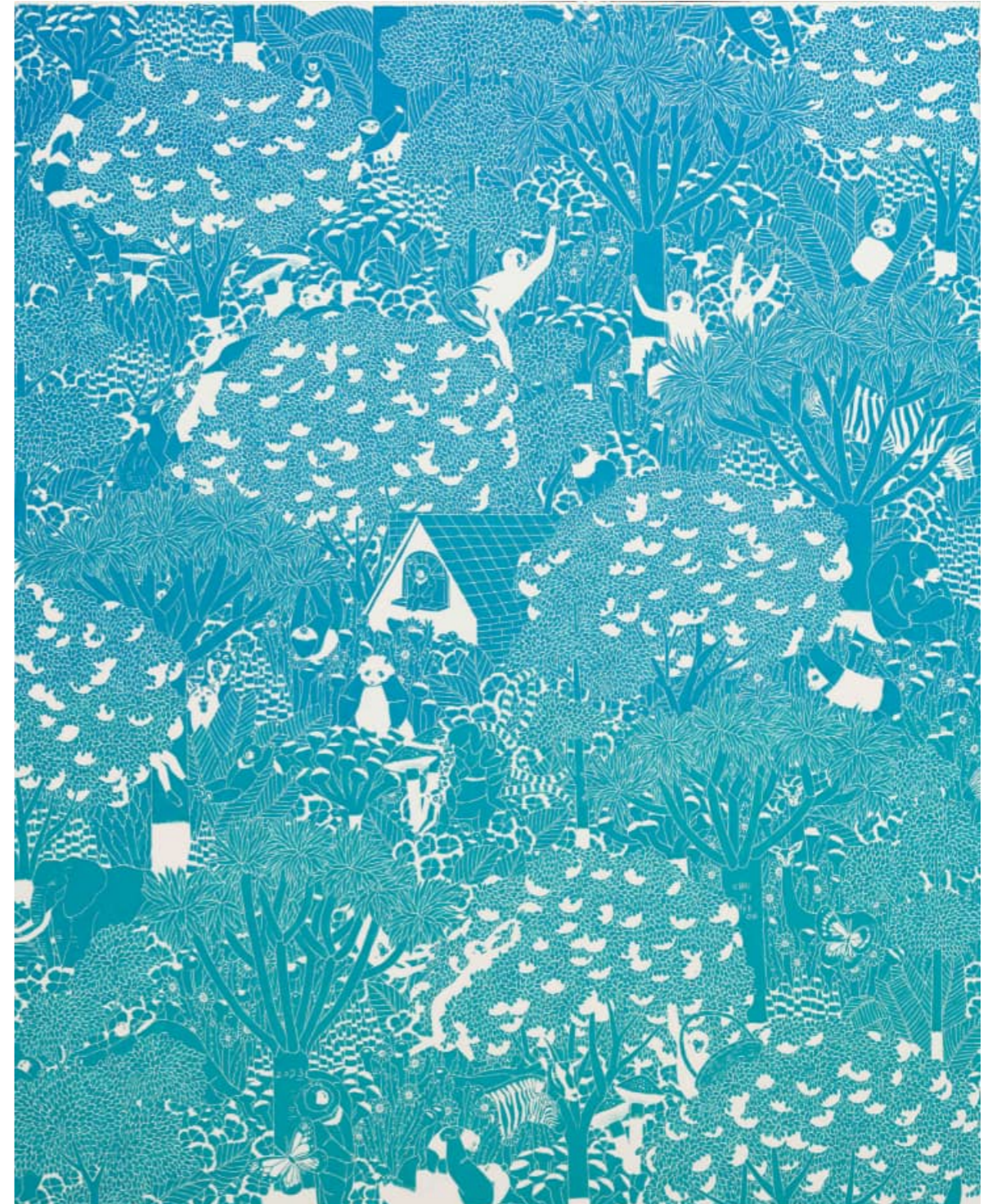
卍 卍 卍 卍

○ 卍 卍 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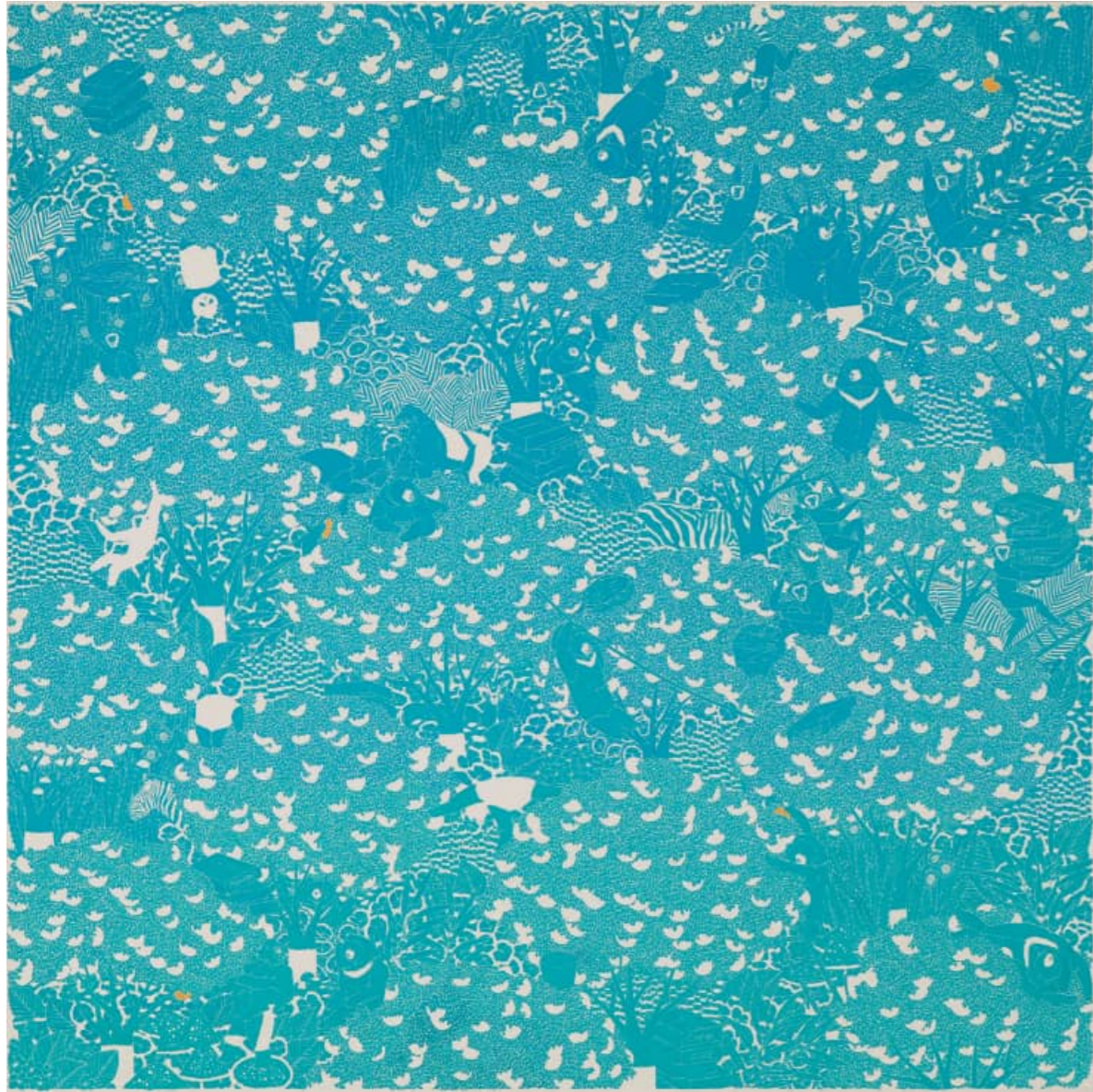




호기로운 날 Joyful Day
 장지 위에 수간 채색, 100x80.3cm, 2023
 Water-based painting on Hanji, 100x80.3cm,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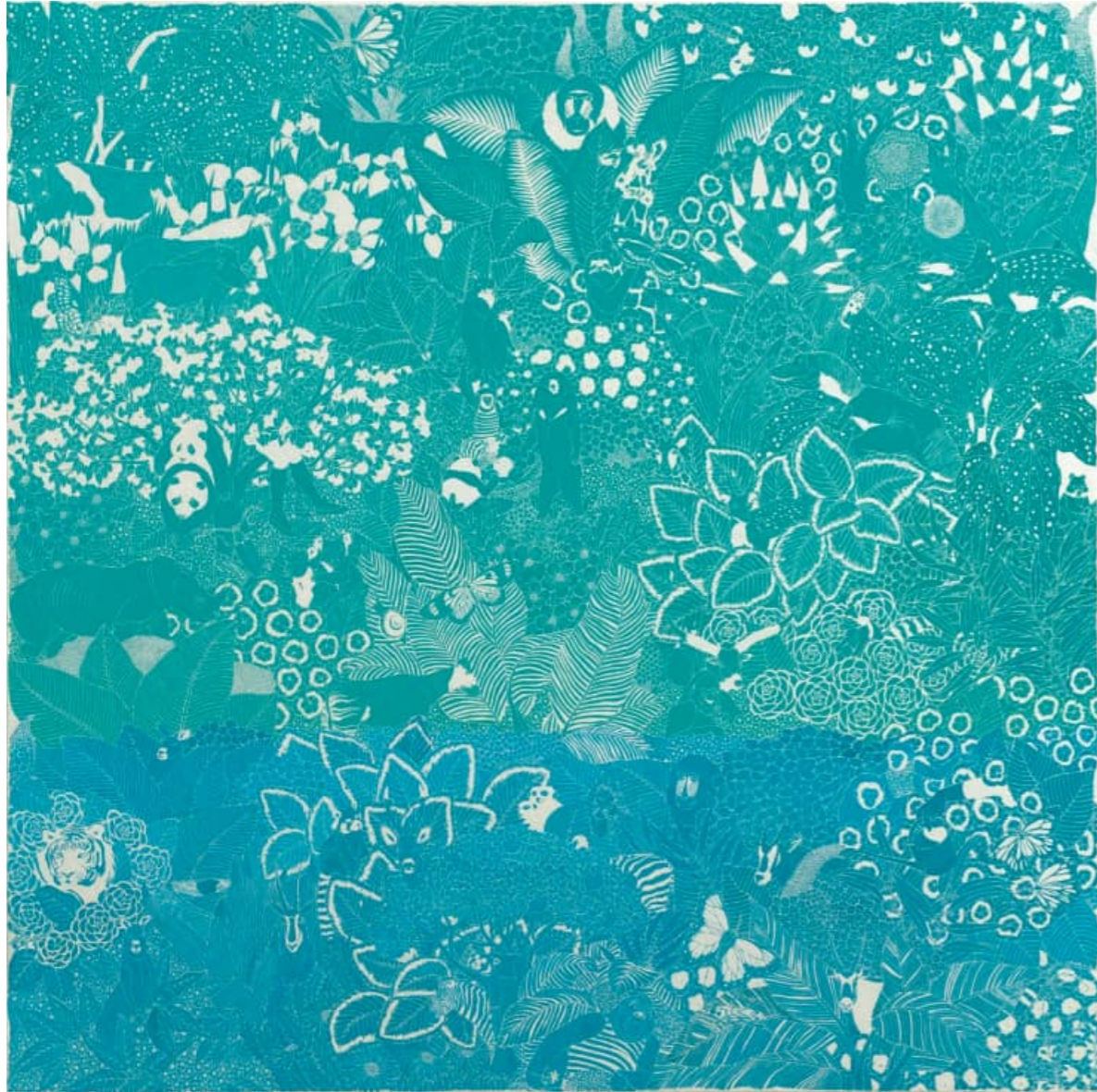
함께하는 마음 Heart of Togetherness
 장지 위에 수간 채색, 100x80.3cm, 2023
 Water-based painting on Hanji, 100x80.3cm,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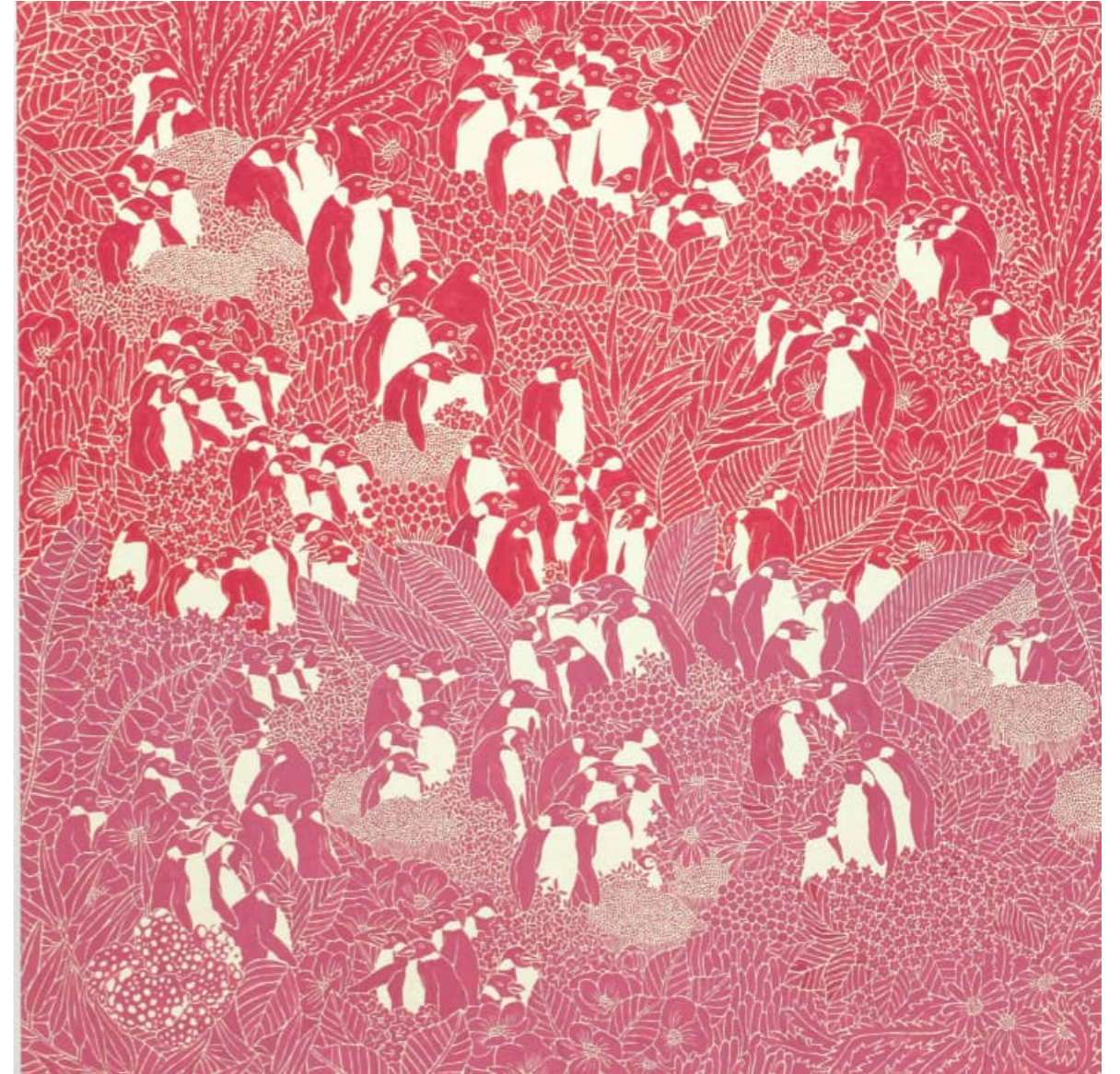
기대 Expectation
 장지 위에 수간 채색, 112.1x112.1cm, 2022
 Water-based painting on Hanji 112.1x112.1cm,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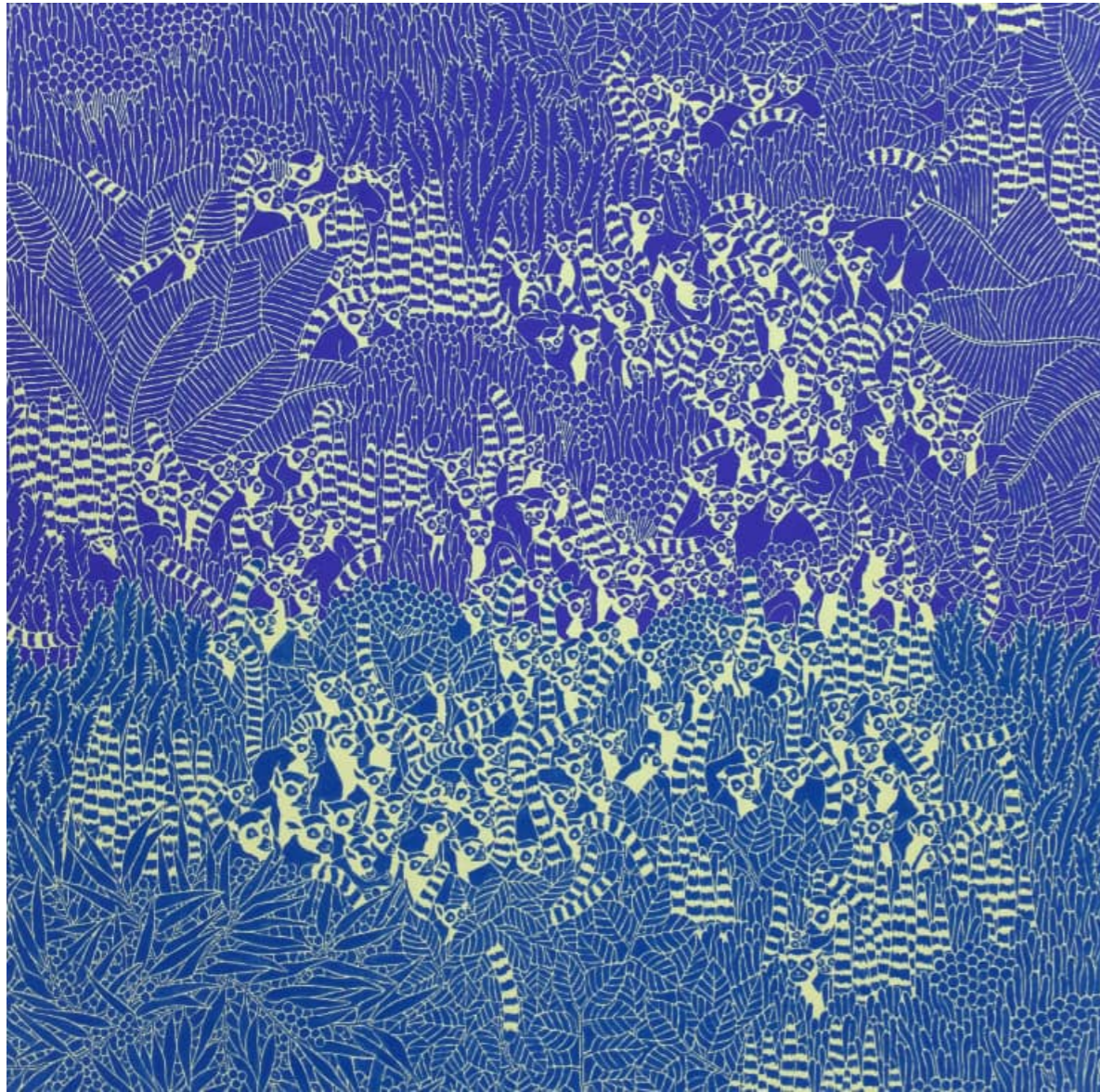
여유로운 시작 Easy Start
 장지 위에 수간 채색, 90x90cm, 2021
 Water-based painting on Hanji 90x90cm, 2021



나의 정원 My Garden
장지 위에 수간채색, 91x91cm, 2020
Water-based painting on Hanji 91x91cm, 2020



가보지 않은 곳 Unvisited Place
장지 위에 수간 채색, 60x60cm, 2020
Water-based painting on Hanji, 60x60cm, 2020



대가족 Extended Family
 장지 위에 수간 채색, 60x60cm, 2020
 Water-based painting on Hanji, 60x60cm, 2020



함께 보낸 시간들 Time Spent Together
 장지 위에 수간 채색, 145.5x112.1cm, 2021
 Water-based painting on Hanji 145.5x112.1cm, 2021



꿈과 환상의 나라 Land of Dreams and Fantasies
장지 위에 수간 채색, 145.5x112.1cm, 2021
Water-based painting on Hanji, 145.5x112.1cm,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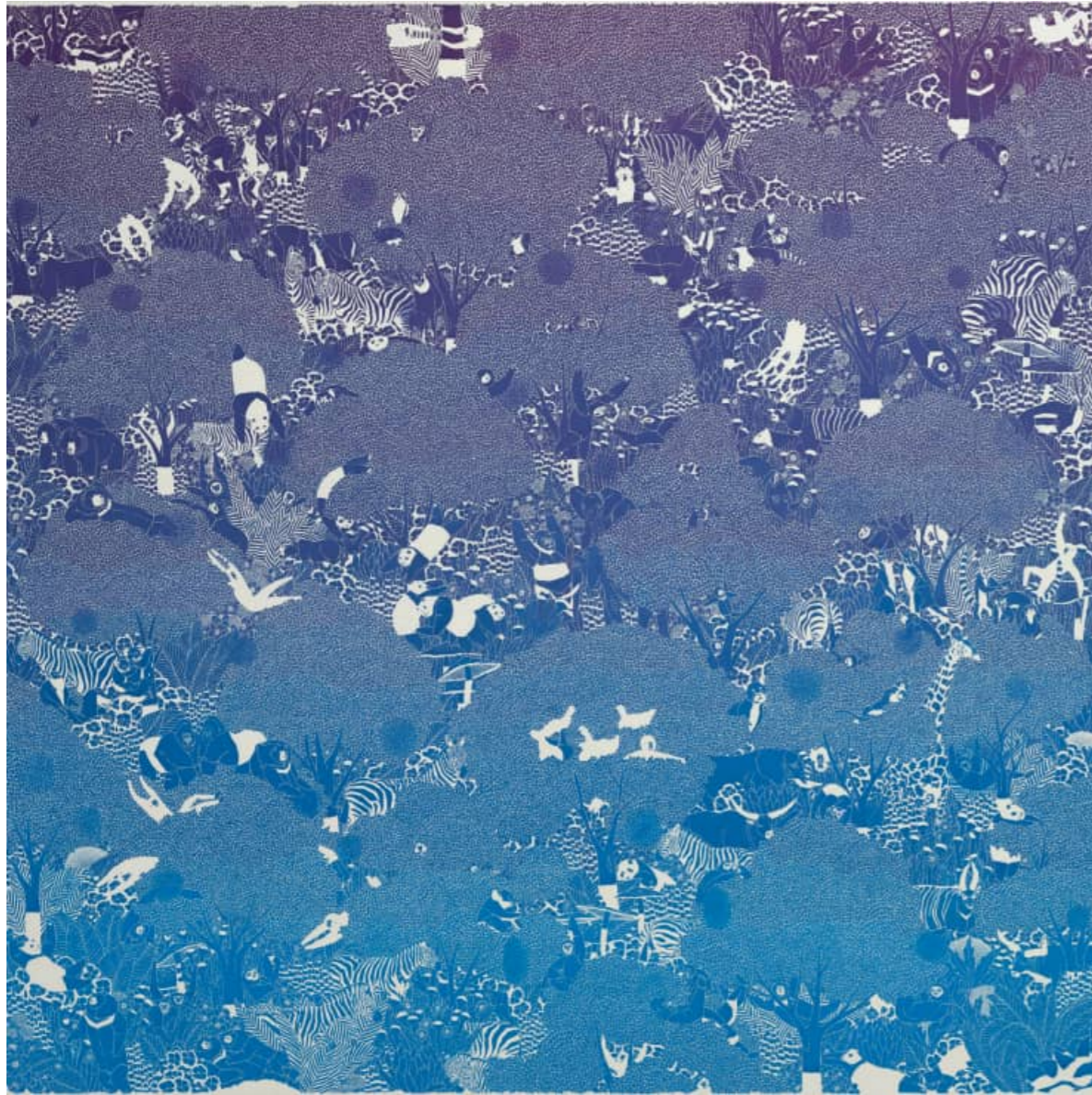
내게 온 봄 Spring Came Upon Me
장지 위에 수간 채색, 145.5x112.1cm, 2021
Water-based painting on Hanji 145.5x112.1cm,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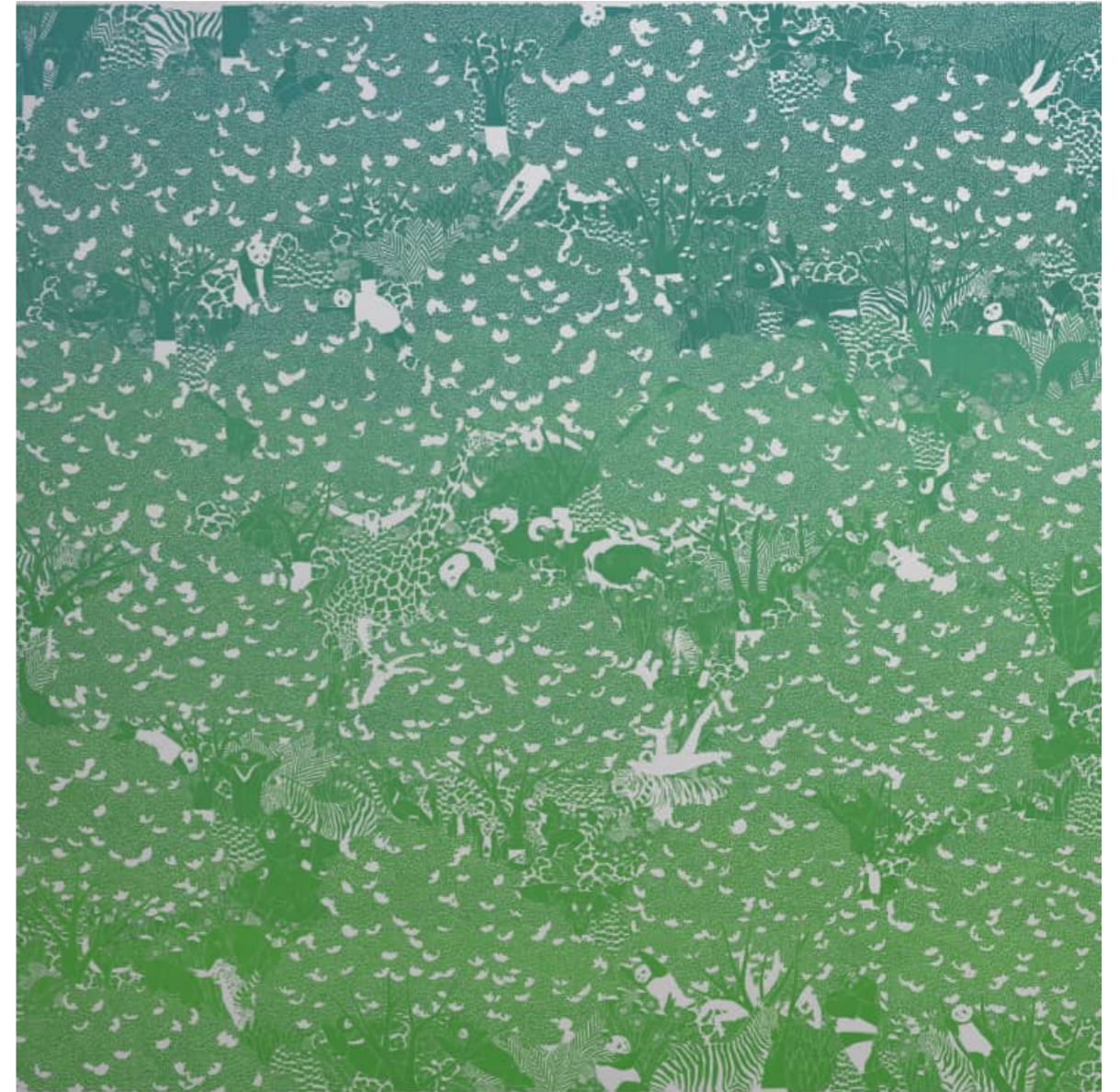
빛이 나는 시간 Time of Light
장지 위에 수간 채색, 60.6x60.6cm, 2022
Water-based painting on Hanji 60.6x60.6cm, 2022



꿈을 찾는 시간 Time to Pursue Dreams
장지 위에 수간 채색, 60.6x60.6cm, 2022
Water-based painting on Hanji, 60.6x60.6cm, 2022



지나가는 것에 대한 About Passing Things
장지 위에 수간 채색, 130.3x130.3cm, 2023
Water-based painting on Hanji, 130.3x130.3cm, 2023



선명한 기억 Vivid Memory
장지 위에 수간 채색, 130.3x130.3cm, 2023
Water-based painting on Hanji, 130.3x130.3cm, 2023



꿈꾸는 날1,2 Dreaming Days 1,2
장지 위에 수간 채색_224.2x193.9cm_2023
Water-based painting on HanjiWater-based painting on Hanji , 224.2x193.9cm, 2023



전시전경 Installation view of the exhibition

A blue promotional poster for an art exhibition. It features large white Korean characters at the top, a central illustration of a bird, and text providing exhibition details. The bottom section includes logos for the Danwon Art Festival and the artist's n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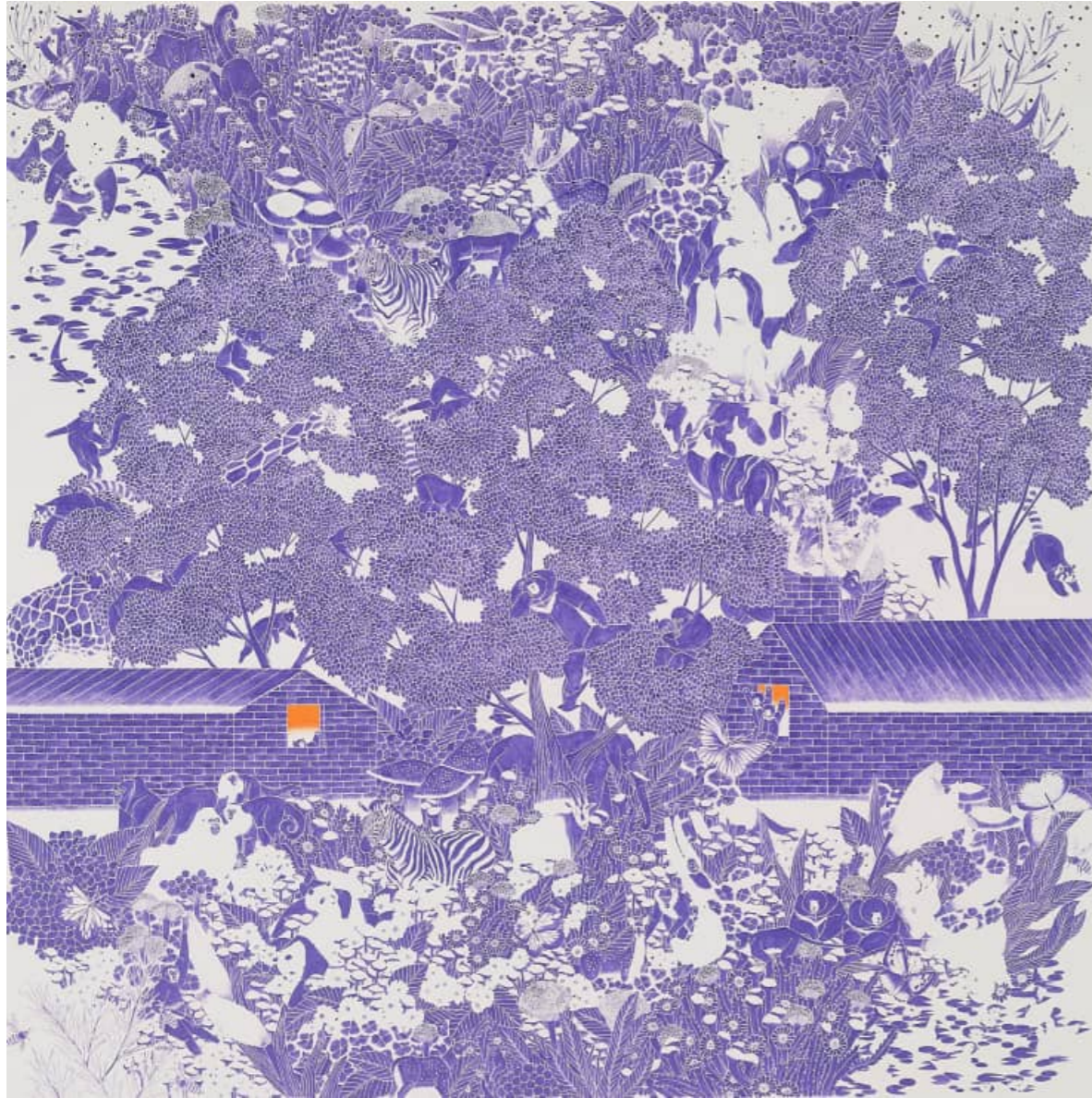
최지현 개인전
_있거나 없는, 없거나
2024. 10. 1. TUE —
김홍도
2024 단원미술제 2024 안산
안산아트스타
2024 단원미술제
2024 DANWON ART FESTIVAL FOLLOW-



전시전경 Installation view of the exhibition



전시전경 Installation view of the exhibition



이여지는 시간 Flowing Time
 장지 위에 수간채색, 97x97cm, 2024
 Water-based painting on Hanji 97x97cm, 2024



함께 가는 길 Path Taken Together
 장지 위에 수간채색, 60.6x60.6cm, 2024
 Water-based painting on Hanji, 60.6x60.6cm, 2024



언제나 함께 Always Together
 장지 위에 수간채색, 53x45cm, 2024
 Water-based painting on Hanji, 53x45cm, 2024



불켜진 집 House With the Lights On
 장지 위에 수간채색, 53x45cm, 2024
 Water-based painting on Hanji, 53x45cm, 2024



피어오르는 집 House with Smoke Rising
장지 위에 수간채색, 53x45cm, 2024
Water-based painting on Hanji, 53x45cm, 2024



감싼 마음 Embracing Heart
장지 위에 수간채색, 53x45cm, 2024
Water-based painting on Hanji, 53x45cm,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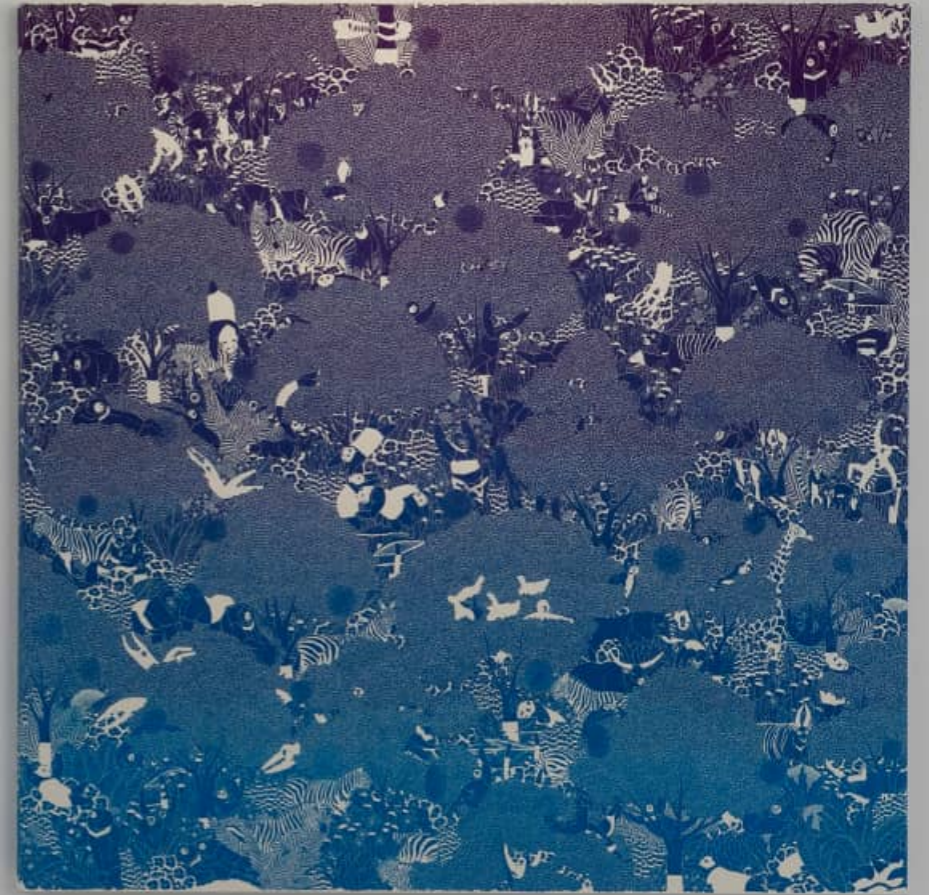
같은 마음 Shared Heart
장지 위에 수간채색, 53x45cm, 2024
Water-based painting on Hanji, 53x45cm, 2024



전시전경 Installation view of the exhibition



전시전경 Installation view of the exhibition



전시전경 Installation view of the exhibition



인터뷰

Interview



Q1. 이번 전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번 전시는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후속 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된 저의 개인전입니다. 식물을 소재로 한 《생활도감》이라는 전시명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산시 단원미술제 선정작가에 선정되고, 단원미술대상까지 타게 되어 꿈만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려는 작업에 자신감을 가지고 향후 길게 하려는 프로젝트에 큰 자양분 혹은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공모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Q2. ‘잡초’를 작품의 소재로 삼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팬데믹 이후에 많은 분들의 생활양식이 바뀌었을 텐데요. 저도 자의와 타의에 의해 갇히다시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발밑의 식물들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빛에 따른 변화라든지 식물들의 모습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 식물에 관심을 갖고 비로써 들여다보고, 사진도 촬영하고, 그것을 다양한 판화매체, 기법으로 표현하기 시작했고 식물에 대한 관심이 도감을 만들어야겠다는 주제의식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 같습니다.

Q3. 도감의 형태로 식물을 표현하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도감’이라 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세대에는 많은 도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식물, 곤충, 동물 등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자세하게 묘사된 그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그림이 실린 도감을 제작해 보면 재밌겠다고 생각했고 제가 관심이 있는 식물 그중에서도 잡초에 가까운 그런 식물들을 소재로 그것들을 주목하고 그것을 도감으로 제작해서 전시를 구성하고 출판까지 연결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하나의 예술 형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도감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4. 판화기법으로 하나의 작품만을 찍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화의 복제성보다는 에디션을 낼 수 있는 과정 안에서 다양한 변주, 생각, 상상력 그리고 기법 동시대 기술력 등을 담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한 판화의 에디션 개념, 그 장점과 회화의 가장 큰 장점인 유일본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회화와 판화의 장점을 결합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라는 상상을 하게 됐었고 그 상상이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Q5. 새롭게 선보이는 실크스크린 작업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실크스크린은 회화에서 다양한 색채를 표현하는 것처럼 어떤 대상 하나하나의 미묘한 색감 변화 다채로운 색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제가 즐겨 사용하는 카마이유(camaïeu) 배색도 사용할 수 있어서 실크스크린을 중요한 매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전시를 하면서 다채로운 색감을 함께 전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흑백 목판화, 다색 목판화, 나아가서 실크스크린 그 외 혼합기법 판화까지 함께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Q6. 전시 이후의 방향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판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판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가가 첫 번째로 되고 싶고, 프로젝트 커뮤니티 아트 그리고 다큐멘터리와 같은 기록하는 다른 매체도 도전해 보고 싶고, 비합리적이고 말이 안 되는 전설, 구전설화 같은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을 수집하고 기록해서 제가 하는 평면인 판화 작업과 구술들의 기록 다큐멘터리를 결합된 형태의 작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식물을 소재로 도감을 만드는 작업을 약 30여년 정도 긴 호흡을 가지고 창작에 몰두할 계획입니다.





작가약력

Curriculum Vitae

최지현(b.1984)

- 2019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졸업
2006 국립 강릉대학교 미술학과 한국화 전공 졸업
- 개인전
- 2024 《유무무유有無無有 _있거나 없는, 없거나 있는》 김홍도미술관, 안산
2023 《숨은그림찾기》 구리아트홀 갤러리, 구리
2022 《아는 숲》 호아드갤러리, 서울
《이어지는 마음》 수호갤러리, 성남
2021 《숨겨진 마음》 피아츠, 서울
2020 《당신의 특별함에 대한 믿음》 Research & Art Gallery, 서울
2019 《Where are you?》 미나리하우스, 서울
《최지현 개인전》 갤러리 다함, 안산
2016 《일상의 선물》 휴맥스 아트룸, 성남
2015 《무명인》 인사아트센터, 서울
2013 《102호》 인사아트센터, 서울
2012 《숨은 기억 찾기》 습도, 서울
- 주요 단체전 및 아트페어
- 2024 《Young 1》, 하트원, 서울
《브리즈아트페어》, 예술의 전당, 서울
《BAF2024》, 세종문화회관, 서울
최지현 유지희 2인전 《FOREST》, 헬렌앤제이 갤러리, 서울
《절제, 연대》, 수호갤러리, 성남
《Fresh》, 구미갤러리, 서울
- 2023 《The new vanguard》, 스콧앤제이 갤러리, 미국 베벌리힐즈
《ART Ground, London》, 사치갤러리, 영국 런던
제24회 단원미술제 선정작가전 《자유로이 노닐다》, 김홍도미술관, 안산
《브리즈 인사이트》, 예술의 전당, 서울
《한국의 미술, 세계로 향하다》, 헬렌앤제이 갤러리, 서울
《수호 아트 콘서트》, 롯데백화점, 동탄
《close or not all together》, 갤러리 hom, 서울
《장지, 채색전》, 갤러리 이든, 서울
- 2022 《울산아트페어》, 유에코, 울산
《업클로즈 04》, 하트원, 서울
《브리즈 아트페어》, 예술의전당, 서울
《스타트아트페어》, 더서울라이트룸, 서울
《자연과 사람의 기억》, 도화아트, 서울
《An Unexpected Gift》, 최정아갤러리, 서울
《미학적 사유》, 수호갤러리, 성남
《Group by <3>》, 퍼블릭갤러리, 서울
- 2021 《대구아트페어》, 엑스코, 대구
《수호아트콘서트》, 세종문화회관, 서울
《업클로즈03》, 플랫폼 엠, 서울
《호모 비아트르:길위의 사람》, 갤러리 화이트 윈, 서울

- 《뉴웨이브》, 마루아트센터, 서울
《브리즈아트페어》, 예술의 전당, 서울
《여행 feat. 마음》, 현대백화점, 서울
《화랑미술제》, 코엑스, 서울
- 2020 《가평아트페어》, 더스테이힐링파크, 가평
《브리즈아트페어》, 안도, 서울
《예술하라》, 팔레드서울, 서울
《카니발》, 갤러리 아쉬, 파주
《아트경기》, 현대백화점, 부천
《INNERMOST》, 갤러리 가비, 서울
《FIND ART, FIND ME》, 갤러리 써포먼트, 서울
- 2019 《카니발》, 아쉬랩, 서울
《브리즈 아트페어》, 노들섬, 서울
《Refresh angel》, 갤러리 엘트, 서울
《춘추회》, 세종문화회관, 서울
《홍콩하버호텔아트페어》, 마르코폴로호텔, 홍콩
- 2018 《브리즈아트페어》, 세종문화회관, 서울
《춘추회》, 세종문화회관, 서울
- 2017 《기억의 곁에 머물다 3인전》, 갤러리 아쉬, 파주
《그리너리》, 미나리하우스, 서울
- 2016 《표리:경 2인전》, 갤러리 아쉬, 파주
《서울모던아트쇼》, 예술의 전당, 서울
《젊은 작가 3인전》, 유나이티드갤러리, 서울
《브리즈 아트페어》, 블루스퀘어 네모, 서울
- 2015 아트주간 《나는 무명작가다》, 아르코 미술관, 서울
《패턴과 반복》, 내셔널미술관, 인제
《브리즈 아트페어》, 서울혁신파크, 서울수상
- 2023 제24회 단원미술제 대상(안산시, 안산문화재단)
- 2018 브리즈 프라이즈(에이컴퍼니, 서울)
- 프로젝트
- 2023 《23 Artists to Collect in 2023》, Saatchi art
2021 《아트경기 선정작가》, 경기문화재단, 수원
2021 《서울 25부작 공공미술 프로젝트》, 관악, 서울
2021 《Drawing for Green Future》, SK 하이닉스X청년 예술가, 서울
- 작품소장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경기문화재단
서울특별시청 박물관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안산문화재단 김홍도미술관
(주)에이컴퍼니
수호갤러리 외 개인 소장 다수

CHOI Jihyeon(b.1984)

Educational

MFA in Oriental Painting,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BFA in Korean Painting, Gangueung National University, GangNeung. Korea

Solo exhibition

- 2023 Finding a Hidden Picture, Guriartshall, Guri
- 2022 The forest I know (Hoard gallery, seoul)
A continuing heart (Soohoh gallery, Seong-Nam)
- 2021 A hidden mind (Fiarts, Seoul)
- 2020 Belief in your exceptionality, (Research & Art gallery, Seoul)
- 2019 Where are you? (Minari-House, Seoul)
Choi, Ji-Hyeon Exhibition (Gallery Daham, Ansan)
- 2016 present of daily life (Humax art-room, Seong-Nam)
- 2015 Anonymous (In-Sa Art Center, Seoul)
- 2013 No. 102 (In-Sa Art Center, Seoul)
- 2012 Find hidden memory (Soomdo, Seoul)

Group exhibition & Art Fair

- 2024 Young1 (H.Art1, Seoul)
Breeze Art Fair (Seoul Arts Center, Seoul)
BAF2024 (Sejong Cultural Center, Seoul)
FOREST (Helen&Jae gallery, Seoul)
Moderation, Solidarity (Soohoh Gallery)
Fresh (Gouter Gallery, Seoul)
- 2023 The new vanguard, Scott&jae gallery (Beverly Hills, USA)
Art Ground, London (Saatchi gallery, London, UK)
Play freely (Kimhongdo Art Museum, Ansan)
Breeze insight (Seoul Arts Center, Seoul)
close or not all together (Gallery hom, Seoul)
Jangji and Painting (Gallery eden, Seoul)
- 2022 Art Fair Ulsan (UECO, Ulsan)
Upclose04 (H.art1, Seoul)
Breeze Art Fair (Seoul Arts Center, Seoul)
Start Art Fair Seoul (The seoul liteum, Seoul)
The memory of nature and man (Dohwa art, Seoul)
An Unexpected Gift (Choi Junga gallery, Seoul)
Group by <3> (Public gallery, Seoul)
- 2021 Daegu Art Fair (EXCO, Deagu)
Soohoh Art Consert (Sejong Cultural Center, Seoul)
Upclose03 (Platform L, Seoul)
New wave (Maru art center, Seoul)
Breeze Art Fair (Seoul Arts Center, Seoul)
Galleries Art Fair (Coex, Seoul)
Ttavel feat, Mind (Hyundai Department store, Seoul)

- 2020 Gapyeong Artfair (The stay healing park, Gapyeong)
Breeze Art Fair (Ando, Seoul)
Art-Gyeonggi (Hyundai Department Store, Seoul)
Canival (Gallery aHsh, Paju)
Arthara (Palais de Seoul, Seoul)
<INNERMOST> (Gallery Gabi, Seoul)
FIND ART, FIND ME. (Gallery Suppoment, Seoul)
- 2019 Canival (aHsh Lap, Seoul)
Breeze Art Fair (Nodeul Island, Seoul)
Refresh Angel (Gallery Alle, Seoul)
Choon-Choo (Sejong Cultural Center, Seoul)
Harbour Art Fair (Marco Polo HongKong Hotel, HongKong)
- 2018 Breeze Art Fair (Sejong Cultural Center, Seoul)
Choon-Choo (Sejong Cultural Center, Seoul)
- 2017 Stay by memory (Gallery-aHsh, Paju)
Greenery (Minari House, Seoul)
- 2016 Seoul Modern Art Show (SeoulArtsCenter, Seoul)
Breeze Art Fair (Blue Square, Seoul)
Three young artists (United Gallery, Seoul)
- 2015 Art week (ARCO Museum, Seoul)
Pattern and Repeat (Naeseolak Public art museum, Inje)
Breeze Art Fair (Seoul Innovation Park, Seoul)

Project

- 2023 23 Artists to Collect in 2023 (USA)
- 2021 Art Gyeonggi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nsan, Korea)
- 2021 MCST-Seoul 25 public Art Project-Gwanak (Seou, Korea)
- 2021 Drawing for Green Future (SK hynix x Artist, Seoul, Korea)

Awards

- 2023 The 24th Danwon Art Festival Grand Prize (Ansan Cultural Foundation, Ansan)
- 2018 Breeze Prize (A company, Seoul)

Collections

-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bank, Gangmyeong, Korea
-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Suwon, Korea
- Seoul City Hall, Seoul, Korea
- Chuncheon District Court Sokcho Branch, Sokcho, Korea
- Ansan Cultural Foundation, Ansan, Korea
- Acompany, Seoul, Korea
- Soohoh Gallery, Seong-Nam, Korea

E-mail : kh369369@daum.net

Mobile : +82 (0)10-3155-1726

2024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후속 지원프로그램 최지현 개인전

《유무무유有無無有 _있거나 없는, 없거나 있는》

주최 안산시
주관 (재)안산문화재단

발행일 2024. 10.
발행처 안산문화재단 김홍도미술관
발행인 이민근 안산시장·안산문화재단 이사장
편집인 이성운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총괄 하진용 김홍도미술관장
전시기획 배수진 학예연구사
전시보조 김소현 코디네이터
운영지원 원유준, 김장은, 국예림
시설지원 권선지, 박미애, 백서빈

도슨트 황세숙
안내 강성애, 김경태, 김숙경, 이정란, 정진화, 조승희, 최경순

평론 안진국 미술비평가

번역 한국통번역(주)
디자인 스물베리어티
공간공사 (주)도시공영
사인물 제작 (주)이엘아트
사진촬영 사진, 담다
영상제작 연출편집(스튜디오 오디티), 영상촬영(김예지, 송다예)

©안산문화재단, 2024

이 책에 수록된 작품도판 및 텍스트의 저작권은 해당작가와 저자 및 (재)안산문화재단에 있습니다. 도판과 텍스트 사용을 원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사용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홍도미술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22
T.031-481-0505 F.031-413-5566 W.danwon.ansanart.com

The 24th Danwon Art Festival Follow-Up Supporting Program for the Selected

Artist: Individual Exhibition for Na Gwangho

《An Illustrated Book of Life》

Hosted by Ansan City
Organized by Ansan Cultural Foundation

Publication Date October 2024
Publishing Office Kim Hongdo Art Museum, Ansan Cultural Foundation
Publisher Mingeun Lee, Mayor of Ansan and Chief Director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Editor Seongun Lee, CEO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General Manager Ha Jinyong, Director of KimHongdo Art Museu

Exhibition Planner Bae Sujin

Assistant Exhibition Planner Kim Sohyun

Operational Support Won Yujun, Kim Jangeun, Kook Yelim

Facility Support Gwon Seonjin, Bak Miae, Baek Seobin

Docent Hwang Sesook

Guide Kang Sungae, Kim Kyungtae, Kim Sookkyeong, Lee Jeongran, Joung Jinhwa, Cho Seunghee, Choi kyungsoon

Review Lev AAN, Art Critic

Translation KOREA Translations Co., Ltd.

Exhibition Design Small Variety

Construction Dosigongyoung Co.,Ltd.

Signboards EL Art Co.,Ltd

Photography Photo Damda

Video Production DirectingEdit(Studio Oddity), Videography(GIMYEJI, SONGDAYE)

©Ansan Culture Foundation, 2024

The Ansan Cultural Foundations holds the copyright of illustrations and texts in this book. Please contact the copyright holder for permission to use the illustrations and texts.

Kim Hongdo Art Museum

422, Chungjang-ro, Sangnok-gu, Ansan-si, Gyeonggi-do
T.031-481-0505 F.031-413-5566 W.danwon.ansanart.com

 단원미술제 2024 안산
DANWON ART FESTIVAL 2024 ANSAN

주최  안산시

주관  안산문화재단
ANSAN CULTURAL FOUNDATION

 김정도미술관
GIMJEONGDO ART MUSEUM